

경산 송관엽 초대전 '그래! 산'

전주 기린미술관, 12일~4월 16일 개최... 13일 개막식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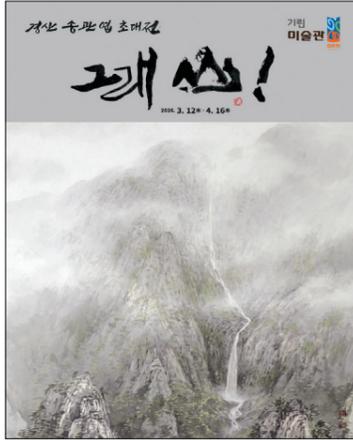
전주 기린미술관에서는 오는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그래! 산'이라는 주제로 경산 송관엽 한국화가 초대한다. 개막식은 3월 13일 오후 4시30분에 기린미술관에서 거행된다.

송관엽작가는 한국 전통 수묵화의 맥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한국화가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 필법과 여백의 미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대적 감수성과 주제 의식을 화면에 담아내는 작업을 지속해 온 작가이다.

대학원 졸업 후 공모전에 출품하면서 전통의 기반에서 현장 묘사에 집중하였고, 공모전에 출품을 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산을 구름과 안개를 포함한 구성으로 재해석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먹으로의 묘사가 어려워 색으로 먹의 맛을 담아 그리기를 많이 했다.

그 후 서서히 먹의 표현이 색으로 덮이지 않게 되며, 안개와 구름이 피고 지는 이유와 느낌을 알고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그림에서 색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려가면서 먹색을 조금씩 알게 되고, 이제는 빠져나가는 색과 같이 먹도 내보내고 단순하게 바라보여지는 산을 마음속에서 녹여 흔적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대략 10년을 주기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요사이 작품세계는 수묵 중심의 표현으로 먹의 농담과 번짐을 활용하여 자연의 기운과 정신성을 표현하고, 자연·산수 주제로 산, 물, 나무 등 자연을 통해 인간 내면과 시간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여백의 미학을 추구하여 속에서 사유와 호흡을 유도하는 전통 동양화적 구성을 중시하고, 현대적 변주를 통하여 전통 재료인 한지와 먹을 주로 사용하면서도 구도나 색채는 단조롭게 실험성을 보이기도 한다.



경산 송관엽 초대전 '그래! 산' 포스터

이현옥 기린미술관 관장은 "송관엽 작가의 예술적 특성을 보면 단순한 자연의 재현을 넘어 기운생동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며, 서예적 필획에서 오는 리듬감을 보여 주고, 자연을 통한 철학적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송관엽 작가는 한국화가 전통 회화 양식을 답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동시대적 감각 속에서 재해석하려는 흐름에 속한다. 특히 자연을 매개로 한 정신성 탐구는 원로 세대 한국화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미학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초기 화풍은 전통 남종산수화(南宗山水畫)의 습윤한 기풍과 실경 산수의 생동감을 기반으

로 한 표현이 그의 초기·중기 화풍의 특징이다. 벽천 나상목, 송계일 같은 한국 근·현대 산수화의 원로들에게 사사하며 산수의 기운과 자연의 정서를 전통적 감각으로 계승했다.

산과 자연에 집중하여 평원법과 간결한 필선, 담백한 먹과 색채로 자연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집중하는 실경적 요소가 강하다.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산수에 정서적 차원과 삶의 의미를 담아냈다.

송 작가는 "최근 작품에서는 한국의 산의 형상 묘사에 그치지 않고 이상적 자연을 추구, 즉 현실 풍경과 화가 내면의 이상이 결합된 표현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안개, 시간의 빛·그림자 등 자연 요소를 통해 공기 원근법(空氣遠近法)적 입체감을 중시하면서 시각적 깊이·철학적 사유를 확장한다.

'산 이야기' 등 다양한 개인전을 서울 및 전국 곳곳에서 개최했다. '붓을 든 철학자(2022)' 등 시·산수화 개인전을 열어 신작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완도수목원 등에서도 초대전이 열려 열네 번째 개인전으로 소개된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전통산수화 소장 작가전, 서울 미술관의 현대 자연회화제 등 600여 회 이상의 그룹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전시 활동을 이어왔다. 작가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전주지방검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송 작가는 원광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를 수료하였고, 주요경력으로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 전북미술대전 운영위원장, 한국미술협회 이사 및 분과위원장,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중견작가초대전 운영위원장 등을 수행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지 작품 제작뿐 아니라 한국 화단의 전국미술대전의 심사와 운영에 참여하여 후진 양성에도 기여했다.

/김재훈 기자

판소리 정수 '완창무대' 전주서 펼쳐진다

우진문화공간서 14일~4월 11일 매주 토요일 소리꾼 5명 무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올해도 판소리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판소리 완창무대'가 펼쳐진다.

전주시와 (재)우진문화재단(이사장 김보리)은 오는 14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우진문화공간에서 '2026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를 선보인다.

10회제를 맞은 올해 판소리 완창무대에는 △김찬미(동초계 수궁가) △김정훈(김세종제 춘향가) △조정규(박봉술제 적벽가) △양혜원(강산제 심청가) △박성우(박목주제 흥보가) 등 탄탄한 실력을 갖춘 소리꾼 5명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이번 무대는 수 시간 동안 이어지는 소리와 장단으로 관객에게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고, 아니리와 창, 발림이 어우러진 생생한 현장감으로 판소리의 진면목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완창을 마친 소리꾼에게 판소리의 활발한 전승과 보존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판소리 완창패'를 수



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주 판소리 완창무대는 모두 무료로 운영되며,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티켓박스(www.jticketbox.com)를 통해 사전 예매한 뒤 공연을 관람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남원 광한루원 '한복 체험 대기 등록 시스템' 본격 시행

남원시의 대표 한복 체험관인 '화인당'은 봄철 관광객 급증에 대비해 스마트한 변신을 시도해 3월 9일부터 방문객의 혼잡을 막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복 체험 대기 등록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화인당의 한복 체험 수요도 꾸준히 증가,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춘향제와 같은 성수기에는 체험객이 몰리면서 장시간 현장 대기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화인당뿐만 아니라 광한루원 라운지까지 시스템 운영 대상을 확대해 체험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QR 코드 기반의 모바일 신청과 현장 접수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된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방문객은 QR 코드를



통해 등록하면, 부여받은 순번에 맞춰 모바일 알림이 전송되고 지정된 시간에 맞춰 입장하면 되는 방식이며, 자세한 내용은 화인당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거나 화인당(063-632-8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무 기자

고창문화의전당, '더 보컬리스트 알리&정인 콘서트' 19일 개최

고창문화의전당이 만들어 소생하는 봄을 맞아 군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선사하는 신춘공연 '더 보컬리스트 알리&정인 콘서트'를 오는 19일 저녁 7시30분에 연다.

공연료는 10,000원이며 고창군민 특별 할인으로 3,000원(청소년 1,500원)이다. 티켓예매는 3월 12일 9시부터이며 인터넷 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 현장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9일 고창읍 도산리 일원 현장에서 '고창군립미술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갔다.

고창군립미술관 건립 '첫 삽'

기공식 개최... 2027년 하반기 개관 목표 사업 추진

고창군이 9일 고창읍 도산리 일원 현장에서 '고창군립미술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갔다.

기공식에는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 및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예향 고창의 새로운 거점이 될 미술관의 시작을 축하했다.

고창읍 도산리 869번지 일원에 들어설 고창군립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전시실을 비롯해 유물을 직접 보며 소통하는 개방형 수장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돕는 창작 스튜디오, 군민들의 쉼터가 될 문화 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고창군립미술관은 인근 고인돌 박물관, 운곡습지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지붕 없는 생태 미술관'을 지향한다. 이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관을 넘어, 군민의 삶과 자연이 예술로 승화되는 고창만의 차별화된 문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철저한 안전 관리와 공정 과정을 거쳐 오는 2027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